

곡성군, 청년 유입 '젊은곡성 만들기' 박차

4개 분야 청년 지원체계 확립
청년활동가 배치 일자리 창출
20~30대 청년농 공동체 결성
도시청년 곡성살이 기회 제공



곡성군이 올해 초 '청년키움 지원체계' 확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창업과 청년 공방 공간 조성사업'으로 문을 연 청년행복가게 1호점 '촌스마미'.

곡성군이 '청년 키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청년 유입을 늘려 젊은 곡성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 키움 지원체계는 청년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 돌봄', 청년 주거와 금융지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채용', 청년 문화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즐거움', 청년 농부 육성을 위한 '청년 농부다움'의 4대 분야로 구성됐다.

곡성군은 청년 '마을로'와 '내일로' 사업 등을 통해 32명의 청년활동가를 마을과 기업에 배치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군은 '6070 낭만 곡성 공방 조성사업'과 '청년창업과 청년 공방 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올해에만 벌써 20여 개의 점포가 창업을 완료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다.

'청년 농업인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사업'으로 연간 10 농가에 최대 4000만원

(군비 50%·자부담 50%)의 농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또 '청농공채(靑農共彩)'라는 20~30대 청년농 공동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LH와 협약을 맺고 2021년까지 곡성읍과 옥곡면

에 총 27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귀농·귀촌 프로그램인 '청춘작당'으로 도시 청년들에게 100일간의 곡성살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청년의 유입은 지역

성장 동력, 지역의 미래와 연결돼 있다"며 "도시의 삶과는 다른 대안적 삶을 살고 싶은 청년들에게 곡성군이 양지가 되겠다는 목표로 청년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보성의병사' 개정본 나온다

의병장 박광전·임계영, 서재필 선생 등 777명 재조명

보성군이 지난해 발간한 '보성의병사' <사진> 개정본 인쇄에 들어간다.

보성의병사는 2017년 보성의병 자료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호남절의록, 전남도지, 보성군지, 14연대 진중일지 등 각종 문헌과 논문을 고증·분석해 정립됐다.

인물, 사건, 선양사업 3권으로 구성된 보성의병사는 임진왜란 때 보성에서 의병을 일으킨 죽전 박광전(1526~1597)선생과 삼도 임계영(1528~1597) 전라좌도의 병장을 비롯해 머슴살이 의병장 안규홍, 독립운동의 아버지 흥암 나철선생, 독립운동 선각자 송재 서재필 선생 등 임진왜란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혼돈의 역사에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 777명을 재조명해 의병들의 삶을 책으로 엮었다.

1권 인물편에는 보성의병 및 의병 활동사가 실려 있고, 2권 사건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경술국치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보성의병들의 봉기 현황을 조망했다.

3권 선양자료는 의병자료를 바탕으로 기념사업의 역사와 복원 작업 등을 돌아보고 역사 기념의 방향을 제시했다.

보성의병사는 임진·정유재란, 일본 피랍, 심하전투, 정묘·병자호란, 한말·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까지의 의병을 발굴하고 사건을 조망해 향토사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민국 의병사 연구에도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며 역사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의병관련 유적 및 유품 발굴에 힘쓰고, 의병선양사업을 위한 스토



리텔링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흥암나철기념관과 죽전박광전기념관,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금진전선 상유십이' 장계를 올린 열선루, 상유십이 공원, 군영구미 등 보성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성의병의 활약상을 역사문화 관광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보성군, '30년이상 흡연' 군민 284명 폐암 조기검진

보성군이 30년 이상 하루 1갑 이상 흡연한 군민 284명을 대상으로 폐암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으며 보성군보건소는 대상자들이 적기에 검사

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검진방법은 저선량 흉부컴퓨터단층촬영(CT) 방식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는 검진비용이 무료다.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본인부담금 1만원이 소요된다.

폐암 검진 지정병원인 전남 지역 21개 의료기관과 광주 14개 의료기관에서 검진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검진안내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멜론 홍콩 판촉행사

1억5000만원 판매 성과

곡성군은 올해 7~8월 홍콩 현지에서 개최한 멜론 판촉 행사로 큰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사업단은 지난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홍콩 대형유통업체 22개 매장에서 판촉전을 열었다.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에서 계약재배로 생산하고,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사용해 공동선별한 최고 품질의 곡성 멜론을 선보였다.

10차례에 걸쳐 총 53t의 곡성 멜론이 바다를 건너 홍콩 시장에 선보였다.

그 결과 당도 판촉 매출 목표인 1억원을 훨씬 웃도는 1억5천300여만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곡성군은 멜론 출하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에 적절하게 수출이 이루어져 곡성멜론의 가격 하락 방지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8kg 박스 기준 4~5개가 들어가는 대형과 위주 상품이 홍콩 고급 슈퍼마켓에 신규 입점하는 성과도 거둬 기존 소형과 위주의 현지 시장에 새로운 소비구조를 개척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흥 녹동신항 '어선안전조업국' 문열어

25억원 투입 어업인 교육장·안전체험실·통신실 등 갖춰

고흥 녹동신항에 지역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지원할 어선안전조업국(사진)이 문을 열었다.

수협중앙회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은 지난 16일 전남 동부지역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국을 개국 했다고 밝혔다.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은 국비와 수협예산 등 총 25억원을 들여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부지내 지상2층 연면적 765.3㎡(232평)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어업인 교육장과 안전체험장, 2층에는 민원봉사실, 통신실, 상황실 등을 갖췄다.

업무구역은 고흥과 보성 2개군으로 어선 3507척의 안전조업 지도 교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선 관리, 해상 통합방위 통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업무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규 고흥어선안전조업국장은 "전남 동부지역의 통신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지원은 물론 대어업인 민원봉사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

구례서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개최

19~23일 국제 철인3종 경기...1421명 참가

구례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 철인3종경기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가 열린다.

구례군에 따르면 2019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는 2014년 하프코스로 시작해 2017년 풀코스로 전환한 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선수모집이 마감됐으며 41개국의 해외선수 590여 명을 비롯해 총 1421명의 선수가 참가등록을 마쳤다. 참가선수의 40%가 해외선수로 등록될 정도로 명실상부한 국제대회의 면모를 갖췄다.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는 특히 지난 2년 동안 풀코스 대회를 치른 후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2019년 WTC 전 세계 코스평가에서 우수코스 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 대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선수

등록을 거쳐 경기 당일인 22일 오전 7시 10분 시작된다.

코스는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 등 총 226km로 구성됐으며 수영은 지리산호수에서, 사이클은 지리산호수 옆 대회장을 출발해 산동 산수관에서 간전 남도대교까지 2회전을 하고 다시 지리산호수에 도착한다.

이어 마라톤은 광의교, 지용관, 연화교 구간을 3회전 한 후 구례공설운동장 천연구장 결승점으로 들어오는 코스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선수가 참가 신청을 해 이 대회가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매년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길거리 응원을 보내준 군민의 열정과 참여 덕분에"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동부 센트레빌 상가
매매 및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2억~~ → 6억5000만원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350만원

마지막, 300평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덕남동 임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